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사례와 시사점

이진아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Cases and Implications of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in Japan

Jin Ah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약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은 생활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으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만들기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현황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후생노동성,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관련자료 그리고 학계 논문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고령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등의 안정적 주거 확보 및 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 대상 케어 안심 주택의 명확한 설치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준 및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및 취업 제공의 기회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당사자 주체들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Serviced residences for older people provide living support that allow seniors to live safel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serviced residences for the elderly in Japan and makes suggestions for housing the elderly in Korea. This study was performed by reviewing the literature and materials publish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In Japan, the Act of 'Securement of a Stable Supply of Housing for Elderly Individuals' and the Act regarding 'The Offering of Rental Housing to Persons Requiring Special Assistance to Secure Housing' were enacted to implement policies intended to secure stable housing and daily living support for elderly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tandards for serviced residences for the elderly are being established, and related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al standards and requirements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erviced residences for Korean elderly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job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ailored for the elderly should be created. Third, cooperation and links with various parties and local resident associations must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se activities.

Keywords :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Elderly Housing, Cases, Japan, Literature Study

*Corresponding Author : Jin Ah Lee(Catholic University of Pusan)

email: jj88@cup.ac.kr

Received October 13,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Revised November 15,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8.4%로 [1],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 증가 속에서 1인 가구나 부부 단독 고령 세대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기 특성 변화를 반영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확보가 중요하다[2]. 왜냐하면 노인의 주거 안정은 노후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정신적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노인의 소득수준, 가구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 그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2].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고, 노인장기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저소득층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위 실버타운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비용 측면에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4]. 이처럼 대부분의 주거 정책에서 저소득층 노인지원을 중심으로 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노인 주택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고령자 주거로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중간 소득 계층의 노인을 위한 주택 및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5].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고령자 주거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사회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주거복지서비스를 접목한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6]. 이를 위해 고령자를 위한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모델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고 지자체 주도 고령자 주택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4].

일본은 고령화 대응 정책의 하나로 주택정책과 돌봄정책을 연계하였다[7].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도 핵가족화나 장수화에 따른 1인 가구나 부부 단독 고령자 세대의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고령자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유료 노인 홈이나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과 같은 종래의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관련한 입주일시금 반환을 둘러싼 금전 사건이나 제도의 복잡함 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정책 변화

필요성이 높아졌다[8].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5월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주거법)’을 개정, 거주 공간만이 아니라 일정 서비스도 제공하는 고령자 주택 정비라는 방침이 세워졌고,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 등록제도가 시작되었다[9]. 서비스제공 고령자 주택은 고령자 단신·부부세대가 주거 가능한 임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배리어 프리 구조 등을 가지고 개호·의료와 연계하여 고령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후생노동성이 공동 관리하는 제도로서 창설되었다[10]. 또한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은 애초에 중간 소득자를 위한 주거로서 정비되었다[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돌봄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거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일본의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 사례는 우리나라 고령자 주택 발전에 있어 나름의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현황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1.2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후생노동성,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관련 자료 그리고 학계 논문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과 관련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6년 자료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 2022년 발간된 실태조사보고서, 일본 국토교통부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간담회 등의 자료,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정보제공 시스템 홈 페이지에 접속하여 최근의 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외에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관련 논문 등의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2.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현황 및 사례

2.1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개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란 생활 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8].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만들기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주택으로서 거실의 넓이나 설비, 배리어 프리와 같은 하드(hard)적인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케어 전문가에

의한 안부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11]. 다시 말해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의 등록제도로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규모·설비 측면과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규모·설비 기준은 각 전용 부분의 바닥 면적은 25㎡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거실, 식당, 부엌 기타 주택 부분은 고령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8㎡ 이상으로 한다. 각 전용 부분은 부엌, 수세식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 설비, 욕실을 갖추어야 한다. 공용부분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부엌, 수납 설비 혹은 욕실이 갖추어져 각 호(戶)에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이 확보된 경우는 각 호에 부엌, 수납 설비 혹은 욕실을 갖추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배리어 프리 구조여야 한다. 서비스 기준을 살펴보면, 필수서비스로 안부확인 서비스와 생활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사, 간호사, 개호복지사, 사회복지사, 개호지원전문원 등의 케어 전문가가 적어도 하루 종일 상주하여 안부 확인과 같은 상황파악 서비스와 생활상담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 옵션으로 식사 제공, 청소나 세탁 등의 가사원 조, 건강 상담이나 증진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개호보험 서비스는 입주자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다. 입주자 요건은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요지원·요개호 인정자 등이 이용 가능하다. 계약내용은 장기입원을 이유로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으며, 거주 안정이 확보되는 계약이어야 하며, 보증금, 집세, 서비스 대가 이외의 금전을 징수하지 않는 것 등이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의 등록, 지도, 감독은 도도부현, 지정도시 등이 실시한다. 또한 서비스제공 고령자 주택으로 10년 이상 등록되었고, 입주자의 집세가 근처의 동종 주택 집세와 균형이 맞고, 집세 등의 징수방법이 선불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제공 시스템에 운영정보 공개를 하고, 지역 시구정촌 마을 만들기 방침에 정합하고 있다고 인정된 주택에 대해서 주택정비 사업에 관한 보조를 실시하여, 건설비의 10분의 1, 수리비의 3분의 1 등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수정된 내용에는 신축 입지가 토사재해특별경계구역 및 침수피해 방지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시정촌 지역방재 계획에 위치된 서비스 제공 고

령자주택에 대해 피난계획을 작성하고, 피난 훈련을 실시할 것 등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정보 및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마다 운영정보 갱신이 필요하다. 운영정보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의 필수서비스인 상황파악·생활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입주자 정보와 운영사업자의 운영방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추가되었다[12].

2.2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관련 현황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은 2023년 8월 말 현재 총 등록 건수 8,234이며, 총 등록 호수는 284,154로 집계되었다[13].

사업 실시자를 법인 등 종별로 구분해보면 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64.4%를 차지했고, 의료법인 11.9%, 사회복지법인 8.6%, 그리고 유한회사 8.4% 순으로 되어 있다. 주요 업종으로 구분하자면 개호계 사업자가 72.2%를 차지하고, 의료계 사업자 12.6%, 그리고 부동산업자 7.6%, 건설업자 1.5% 등으로 보고되었다.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20호 이상 30호 미만 이 25.8%, 30호 이상 40호 미만 21.1%, 10호 이상 20호 미만 17.1%로 나타났으며 30호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주택 층수는 2층 건물이 40.2%, 3층 건물이 26.2%로 3층 이하 주택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 부분 바닥 면적은 25㎡ 이상은 21.0%로, 25㎡ 미만이 79.0%로 평균 바닥 면적은 21.9㎡로 조사되었다. 전용 부분의 설비는 화장실, 세면, 수납은 거의 모든 주택에 설치되어 있으며, 부엌, 욕실도 포함해 전용 부분의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곳은 19.2%이다. 배리어 프리에 관해, 모든 주택에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층 건물 이상의 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91.2%로 거의 모든 주택이 설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긴급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곳도 99.4%로 보고되었다. 입주 계약 종류로는 임대차계약이 91.6%를 차지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필수서비스인 상황파악·생활상담 서비스는 모든 주택에서 제공되고 있다. 식사 서비스 제공 96.2%, 건강의 유지 증진 63.4%, 조리 등의 가사 54.3%, 입욕 등의 개호서비스 49.5%였다. 개호보험의 특정시설 입주자 생활개호 등의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은 9.5%였다. 상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격을 보자면, 개호복지사가 가장 많은 73.4%였으며, 그다음은 양성 연수수료자로 68.3%였다. 그리고 간호사 26.6%, 개호지원 전문원 19.0%, 준간호사 19.2%, 사회복지사 6.8%

등으로 나타났다. 한 개 이상의 고령자 생활지원 시설이 병설 또는 근접하고 있는 주택은 4분의 3으로 74.4%로, 병설 시설의 종류는 통소개호사업소 40.2%, 방문개호사업소 40.6%, 거택개호지원사업소 20.4%였다[14].

요개호도별 입주자 상황을 보면, 요개호1, 요개호2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41.6%를 차지하고, 평균 요개호도로 보면 1.5~2 미만인 가장 많아 19.0%로 나타났다. 치매 정도로 보자면 자립이 19.6%이며 III이상의 중증도 비율도 16.2%로 나타나 유료 노인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생활보호 수급자 비율도 평균 2.9명으로 주택형 유료 노인홈의 5.0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입주자 연령은 평균 84.2세이며, 90세 이상이 약 30%를 차지하였고, 85세 이상이 60%, 75세 이상에서 90%를 넘어섰다. 이용요금(총액비용)은 집세에 해당하는 거주비용과 매달의 관리비·서비스비에 해당하는 월액이 이용요금으로 구성된다. 총액비용을 월액으로 환산하여 조사한 결과 12~14만 엔 미만이 가장 많은 14.3%, 14~16만 엔 미만이 12.3%이며 평균 금액은 약 14.2만 엔으로 나타났다[15].

2.3 주택 정책 및 관련 제도의 변화

1950년대부터 2009년에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법'이 개정되어 도도부현에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계획책정이 의무화되었고, 2011년 이후는 돌봄 등의 서비스가 부가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급속하게 정비되었다[16]. 2000년대 이후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계속되었다. 2001년 제정된 '고령자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은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 주관하는 법률로서 제정되어, 2011년 개정에서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이 제도화되었다.

2006년 '주택건설계획법'이 폐지되고 '주(住)생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전후 부흥과정에서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주택정책이 질을 고려하고, 하드(hard)로서의 주택 그리고 주거방식을 도입한 정책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주생활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 지방공공단체, 주택관련업자, 입주자 등 관련자 책무를 정함과 함께, 관계청과의 연계를 예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생활 기본법'에 기반한 주생활기본계획이 실시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새로운 주생활 기본계획'은 주생활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 및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시점과 8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시점인 사회환경 변화의 시점에 대해 새로운 일상, DX의 추진 그리고 안전한 주택·주택

지의 형성 등 2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시점인 거주자·커뮤니티 시점에서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을 낳아 기르기 편한 주거,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 등, 그리고 세이프티네트기능의 정비를 설정하였다. 세 번째 시점인 주택스톡(stock)·산업시점에서는 3가지 목표 즉 주택환경시스템의 구축 등, 빈집의 관리·제거·활용, 그리고 주생활산업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2번째 시점의 목표 중 고령자 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과 마을 만들기 가장 고령자 주거와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배리어프리 성능이나 열 쇼크 대책 등의 시점을 기반으로 한 양호한 온열환경을 갖춘 주택 정비, 리폼의 촉진, 지역 수요나 의료·개호서비스 제공 체제를 고려한 지방공공 단체의 적절한 관여를 통한 정비·정보개시 추진, 다세대가 공생하는 지속가능하고 풍요로운 혼합 커뮤니티의 형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17].

2007년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의원 입법에 의해 제정되어 저소득자, 피해자, 고령자, 장애인, 자녀를 육성하는 가정 기타 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를 요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주택 세이프티네트(safetynet)법'으로 약칭되어 불리고 있다. 이 법률은 주생활기본법을 따른 법으로서, 주택확보 요배려자 복지에 관한 시책 등과의 연계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 지방 공공단체, 택지건물거래업자, 임대관리업자, 주택확보 요배려자 거주관련 지원을 실시하는 단체 등이 주택지원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거주지원협의회는 거주지원 추진조직으로서 기대되고 있다[18].

2017년 '주택세이프티네트법'은 대규모 개정되었다. 민간의 빈집이나 공실을 활용하여 주택세이프티네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 개정의 취지이다[18].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주택확보 요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세이프티네트 등록 주택)의 등록제도, 둘째, 등록주택의 수리나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셋째,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거주지원이 골자이다[17]. 임대주택 임대인은 세이프티네트 등록주택으로서, 도도부현·지정도시 등에 임대 주택을 등록할 수 있다. 도도부현 등에서는 등록된 주택의 정보를 주택확보 요배려자 등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를 보고 주택확보 요배려자 등이 임대인에게 입주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등록주택 수리에 대한 지원으로 수리비에 대한 보조제도가 있다. 수리비 보조를 받은 주택은 10년간은 입주자를 주택 확보 요배려자

로 한정한 등록주택(세이프티네트 전용주택)으로서 관리 받을 필요가 있다. 등록주택 입주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집세와 집세 책무보증료 등의 저렴화 및 세이프티네트등록 주택으로의 주거이전에 대한 보조가 있다. 저소득자가 입주하는 경우, 지방공공단체와 국가가 협력해서 보조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서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거주지원에 있어서, 도도부현이 거주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NPO 법인 등을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안부 확인 등의 생활지원, 등록주택 입주자에 대한 집세 책무보증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거주지원 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생활보호수급자에 대한 대리납부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었고, 집세 책무보증업에 있어 적정하게 업무 실시가 가능한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업자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가 창설되었다. 또한 집세 책무보증업자나 거주지원 법인이 등록주택에 입주하는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해 집세 책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주택용자지원기구가 그 보증을 보험하는 체제도 창설되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 국토교통부, 법무성이 합동으로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거주지원기구 등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원활한 주거의 확보나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이 일체가 된 거주지원 기능 등에 대해 검토한다[18].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evant Laws

Division	Contents
Act on Act on Securement of Stable Supply of Elderly Persons' Housing (2001)	- Revised in 2011 - Creation of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Basic Act for Housing (2006)	- Establis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housing-related companies to ensure the stability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housing for people.
Act on Promotion of Offering of Rental Housing to Persons Requiring Special Assistance in Securing Housing (2007)	- Revised in 2017 - Targeted at people who need special consideration in securing housing, such as low-income earners,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 Also known as the Housing Safety Net Act

2.4 서비스제공 고령자 주택 사례

2.4.1 은목서

지역에 뿌리내린 가정(home)을 지향하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의 사례로 은목서(銀木屋)를 소개하고 있다[19].

주식회사 실버우드가 운영하는 곳으로 동경과 치바현에 10개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 있으며, 2022년 곳 디자인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곳은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로 현관에 열쇠를 채우지 않고, 바닥이나 손이 닿는 곳을 나무 등의 자연소재를 사용하였고 안심할 수 있는 크기감도 고려하였다. 어느 곳이든 모든 은목서에서는 반드시 과자 가게를 병설 운영하고 있다. 1층 공유 공간인 현관 근처에 과자 가게를 설치하여 마을의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하갯길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들러서 과자를 사기도 하고 망설임없이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에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안에서 아이들이 목소리가 이어지고 우라야스(浦安)의 은목서는 입주자나 그 가족, 아이들 이외에도 마마덴스나 드림 씨클 등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지역 어머니들 등 하루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들렀다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열린 가정이 되었으며 고령자와 아이들과의 교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입주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보람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 주민이 과자 가게에 출입하기 쉽게 거리로 열린 출입구가 있다. 과자 가게 점원은 입주하고 있는 고령자 등이 담당하고 있어 입주자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가정 내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의해 아이들과의 교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입주자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회도 되고 있다. 방과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가게에 들러 과자를 사거나 친구들과 숙제를 한다거나 놀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고령자 시설이 아니라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 장소를 보러 온 부모들도 주택 내에 불러들일 장치로서 식당을 지역에 개방하여 어른들의 거처도 마련하고 있다. 매일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점심은 일반인들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가정의 투명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지역으로부터의 신뢰 조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병설되어 있는 방문개호사업소로부터 개호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다를 게 별반 없는 이른바 고령자버전 셰어하우스에 가

까운 이미지라 할 수 있다[20].

2.4.2 아쿠라스 빌리지

자신다운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고령자 주택으로서 지역 개방과 교류의 사례로서 후쿠오카현 다자이후(太宰府)시에 개설된 주식회사 성심이 운영하는 아쿠라스 그룹이 소개되고 있다[21]. 지역과 함께 있는 고령자를 위한 마을을 테마로 시내에 4개의 고령자 주택 등을 개설하였다. 아쿠라스 그룹의 주택은 주택형 유료노인홈인 아쿠라스 타운과 아쿠라스 J, 개호제공 유료노인홈인 아쿠라스 고조(五条),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인 아쿠라스 빌리지가 있다. 개성 강한 단독주택 8채로 구성된 아쿠라스 빌리지는 맨션과 같은 집합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가를 고집하여 시설이 아닌 자택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가까운 이웃들과 사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전문적 직원(staff)에 의한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쿠라스 빌리지 주변에는 아쿠라스 그룹의 다양한 시설이 있어 새로운 지역 커뮤니케이션 만들기를 위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남과 대화는 물론 동아리활동, 문화나 스포츠 활동, 각종 세미나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이 만나서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에 의해 사람들과의 연결, 근처 사람들과의 사귀이 다시 육성되기 시작한다. 조용한 환경 속에 지어진 8세대의 빌리지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개방된 카페, 식당, 갤러리,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등을 병설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시설 내에서 일하면서 사회참가와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2].

2.4.3 쉐어 가나자와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沢)시에 위치한 쉐어(share)가나자와는 총면적 약 11,000평으로 미드타운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구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아틀리에를 포함한 학생 주택, 학생주택, 아동입소시설 등이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마을 안에 천연온천, 레스토랑, 라이브 하우스 등의 시설이 있어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은 미드타운에 위치한 32호의 목조주택으로 단층이 4동 4호, 2층 건물이 2동 8호로 구성되어 있다. 각 호마다 거실, 부엌, 욕실, 테라스와 IH쿠킹히터를 장착하고 있고, 가족이나 애완동물과도 함께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대형 테라스를 가진 공용 거실도 마련되어 있다. 입주자들은 부지 안의 남쪽 지구에 위치한 천연온천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농원을 대여해서 자신이 직접 채소를 기를 수 있다. 자신의 손으로 흙을 만지고 야채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야채는 농가처럼 부지 내 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요리교실 등의 강좌를 기획하거나 운영하여 인생경험에서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술이나 아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마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이나 예술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면서 마을을 운택하게 할 수 있다. 좋아하는 술도 즐길 수 있도록 주민들끼리 와인을 마시거나 요리를 가져와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연온천이나 레스토랑에서 스텝, 상점에서 진열이나 판매 등의 일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이 가능하다. 또한 안심, 안전을 위한 장치 및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긴급 통보장치를 거실에 설치하였고, 전자키를 각 동의 현관에 채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후 의료기관인 호쿠리쿠(北陸)병원을 비롯하여 고령자 데이 서비스 사업소, 방문개호 스테이션 등이 있다. 쉐어 가나자와는 고령자를 비롯하여 대학생, 환자, 장애인 등 남녀노소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주민은 신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다[23].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Examples of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Divisions	Contents
Ginmokusei	- 2022 Good design gold award winner - Activating exchanges with local residents, including children, through the operation of candy store
Aclass Village	-Providing a place and opportunity to create new local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facilities of the surrounding Aclass Group
Share Kanazawa	- Providing opportunities to work according to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preferences, such as vegetable harvesting and sales, restaurant staff, etc.

3. 한국의 케어안심주택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최적의 삶 보장이다[2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거와 관련되는 부분이며, 이는 사회적 입원이나 입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주거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25]. 노인이나 장애인이 평소에 살아가던 곳에서 나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등 4대 핵심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26]. 이 중 노인을 위한 주거 사업으로는 노인맞춤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집수리사업 실시,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사업 실시 등을 들 수 있다[24]. 케어안심주택은 주거지원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 형태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택을 지원 제공하고, 돌봄 대상의 복합적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거·건강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가 케어안심주택의 핵심이기도 하다[27]. 케어안심 주택 대상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지자체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며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노인이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 이후 케어안심 주택에서 제공하는 급식, 재가요양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6].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노인을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외국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형 주택이 케어안심주택의 모델이 되곤 한다[25].

케어안심주택관련 정책사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실버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지원주택 등이 있다[27]. 케어안심주택은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집합형 주택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주택의 경우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선정이나 서비스 공급 체계 구성 등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크고, 이에 따라 주택지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주기간은 임시거주와 장기 거주가 혼합되

어 있으며, 2025년까지 4만호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25]. 이러한 케어안심주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공급 계획의 적절성, 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성 등[27]이 언급되고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의 사례를 통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령자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고령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및 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 주택 제공자들에 대해 수리비, 건설비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의 몇 가지 좋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입주자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 및 교류 기회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입주자들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과자 가게 운영, 레스토랑 개방, 지역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및 참여 등은 이러한 활동에 속한다.

또한 심신 상태에 따라 입주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기를 찾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통해 고령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병설 과자 가게나 레스토랑의 직원 역할, 야채 수확 및 판매, 이벤트의 기획 및 실시 등을 통해 입주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일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입주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취미교실, 운동교실, 학습 기회 등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지속할 수 있고 또 배움 기회를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어 새로운 관계 만들기 등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자립도가 높은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입주자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부지 혹은 지역사회 내 병원이나 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고령자 상황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관련 제도 및 내용에 따른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등에 대한 명확한 설치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준 및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이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에 가까운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케어안심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다른 주거 관련 법률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충돌 여부 및 규정 미비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27]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입주자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및 취업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입주자들의 건강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입주시설이나 부지 내 시설 등에서의 상점 운영 및 물건 진열, 이벤트기획, 실시 등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삶의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기회의 창출 및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고령자 주택 내부 시설 및 서비스들을 지역 민과 공유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과 지역민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생활에 활력과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 고령자 주택 내의 공유 공간의 주민 활용, 식당 이용 기회 제공, 다양한 이벤트의 참가, 취미교실 등을 입주세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것 등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다양한 활동 등이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당사자주체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지역 중심의 고령자 보건, 복지, 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반이 구축 정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지역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연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내용 및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과 우리

나라 케어안심주택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더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비교 연구 및 사례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vailable From: <https://kosis.kr/search/search.do> (accessed Oct, 9, 2023)
- [2] E. N. Kang, B. H. Joo, J. C. Lee, H. W. Bae. A plan to reorganize the senior housing policy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Korea: Focusing on alternative senior housing. 201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 J. H. Yoon, M. N. Kang, H. S. Song, "Elderly housing issues and policy response tasks in an aging society II -Senior housing policy tasks in an aging society". *KRIHS Policy Brief*, Vol.77, pp.1-6. 2004.
- [4] J. Y. Kim, "Implication on service combined housing policy for old age of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Vol.7, No.1, pp.49-64. 2022.
DOI: <https://doi.org/10.38100/jhuf.2022.7.1.49>
- [5] N. H. Byun, S. H. Park, J. Y. Cha. Improvement of senior welfare house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2018.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 [6] J. Y. Moon, Y. S. Hwang, "A case study on the service at tached elderly housing in Japa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Conference Proceedings*, Vol.24, No.1, pp.234-238. 2022.
- [7] H. J. No, J. W. Kang, "Housing and social care for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UK and Japan",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Vol.21, pp.100-111. 2022.
DOI: <https://doi.org/10.23063/2022.06.8>
- [8] E. Tobita, "Senior housing policy status and challenges-Expanding the functions of residence for elderly people with se vice under local leadership", *Japan Research Institute review*, Vol.3, No.22, pp.43-56. 2015.
- [9]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bout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Available From: https://www.kaigokensaku.mhlw.go.jp/publish_sumai/ (accessed Aug, 25, 2023)
- [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bout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Available From: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3_000005.html (accessed Aug, 25, 2023)
- [11]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Information

- Provision System. About the system. Available From: <https://www.satsuki-jutaku.jp/system.html> (accessed Aug, 25, 2023)
- [12]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Pamphlet of the system. Available From: <https://www.satsuki-jutaku.jp/doc/panfu.pdf> (accessed Aug, 25, 2023)
- [13]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Registration status. Available From: <https://www.satsuki-jutaku.jp/journal/article/p=2461> (accessed Oct, 9, 2023)
- [14] Residences for Elderly People with Servic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Current status and analysis. Available From: https://www.satsuki-jutaku.jp/doc/system_registration_02.pdf (accessed Oct, 9, 2023)
- [15] PwC Consulting LLC. Fact-finding research project report on diversification of operation types in senior housing. 2022. Available From: <https://www.yurokyo.or.jp/contents/pdf/3884-1> (accessed Aug, 31, 2023)
- [16] M. Nakagawa, "Evaluation of senior housing policies such as residence for the elderly with service", *Urban Housing Sciences*, Vol.93, pp.22-26. 2016.
- [1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Current status and policy trends regarding senior housing. Available From: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jutakukentiku_house_tk3_000055.html (accessed Aug, 25, 2023)
- [18] H. Takahasi, "Senior housing and social security", *Quarterly of Personal Finance*, 2020 Winter, pp.2-13. 2020.
- [19]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welfare and housing policy. Available From: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0499815.pdf> (accessed Aug, 25, 2023)
- [20] Ginmokusei Urayasu Homepage. About Urayasu. Available From: https://note.com/ginmoku_urayasu/ (accessed Aug, 25, 2023)
- [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Regarding the progress of providing conference topics for 2021. Available From: <https://www.mlit.go.jp/jutakukentiku/house/content/001464800.pdf> (accessed Aug, 25, 2023)
- [22] Aclass Village Homepage. Available From: <https://aclass-seishin.jp/aclass-village/> (accessed Aug, 25, 2023)
- [23] Share-Kanazawa Homepage. Available From: <http://share-kanazawa.com/residence/index.html> (accessed Sep, 7, 2023)
- [2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munity integrated care basic plan. Available From: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accessed Nov, 13, 2023)
- [25] K. C. Nam, "Community care and housing support in Korea", *Social Science Reviews*, Vol.27, No.3, pp.158-181. 2020.
DOI: <https://doi.org/10.46415/jss.2020.09.27.3.158>
- [26] S. H. Park, Y. K. Sung, Plan to Operate Welfare Housing for the Elderly in Preparation for a Super-aging Society, Gyeongnam Institute, Korea, pp.1-103.
- [27] M. W. Lee,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community care 'Care Safe Housing' business plan", *NARS Analysis of Current Issues*, No, 123, pp.1-21. 2020.

이진아(Jin Ah Lee)

[정회원]



- 1999년 3월 : 일본여자대학 인간사회연구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 2006년 11월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지역복지